

직업훈련원

“함께” 라서 더 좋았던 캠프

김창욱



직업학교와는 같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지만 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제외하면 만나기 힘들다. 우리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도 힘들다. 그런데 캠프를 직업학교랑 함께 간다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막상 캠프가 시작되고 "함께 뛰기"에서 함께 뛰고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풀고 손을 내밀어 주며 조원들끼리 협력하다보니 어느새 친해졌다. 센터에서는 서로의 운동경기를 그냥 관전하기만 했는데 한 팀이 되어 서로 응원해 주고 누가 실수를 해도 잘 할 수 있다며 격려를 해주

는 모습이 훈련원과 직업학교가 아닌 "돈보스코 청소년센터"라는 이름아래 하나가 되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어떤 땐 그냥 자유롭게 노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단순한 놀이이기 보다 뭔가를 배워가게 하는 수업 같았다. 함께 뛰며 협동심을 기르고 침묵 속에 이루어진 칠교놀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걸 보면 말이다. 제일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인 철권대회였다. 놀이마당에서 페트병에 물을 반쯤 채워 손으로 쳐서 일으키는 게임을 잘해서 쿠폰을 아주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간식을 사먹고 남은 것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챙겨드리니 받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드린 나도 기분이 좋았다. 이번에 우리 훈련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김혜영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김혜영 선생님을 생각하며 힘내시라고 선물을 드리려고 조개껍질을 묶어 예쁜 목걸이를 만들 때 참 행복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추억 만들기"도 좋았고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작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재미있는 캠프였다.

직업훈련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8월3일(수):2011년 제2회 검정고시에 임철현, 이재형, 김현수가 응시하였습니다.
- 8월4일(목)~10일(수):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여름방학 캠프가 있었습니다
- 8월 19일(금)~21(일):내리 살레시오수련원에서 직업학교와 함께 돈보스코청소년센터 캠프가 있었습니다
- 8월26일(금):용산 랜드시네마에서 영화관람이 있었습니다.
- 8월30일(화):장애인사랑나눔의 집 봉사활동으로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학습봉사 및 노력봉사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28-3652)

직업훈련원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김지희 20,000원, 박경미20,000원, 최재중60,000원, 이윤기100,000원, 김정현300,000원, 김영인800,000원, 신도림빈첸시오100,000원, 임인자50,000원, 정청자20,000원, 이상민8,000원, 김기훈90,000원, 김혜숙200,000원, 손종수10,000원, 한승현10,000원

직업훈련원 후원계좌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우리은행 868-04-100238